

상장폐지 지정종목 2배 늘어… “신중투자 필요”

감사보고서 제출 마감시한 앞뒤 관련 공시 제출 상장사 27곳 집계 카나리아바이오 등 11개사 거래정지 나머지 종목들도 지정 가능성 높아

감사보고서 제출 마감 시한을 앞두고 코스닥 상장사 중 상장폐지 및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종목들은 주가 급락은 물론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까지 이어질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8일까지 '관리종목 지정·형식적 상장폐지·상장정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공시를 낸 코스닥 상장사는 총 27개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1곳)에 비하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공시는 자체 결산에서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의 발생 우려가 제기됐음을 뜻한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 동안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손실이



발생했거나 최근 4개 사업연도 영업손실, 자본전액잠식 등이 발생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이번에 공시된 18개사 중 카나리아바이오, 셀리버리, 파멧신 등 11개사는 관리종목으로 이미 지정돼 거래가 정지됐다. 카나리아바이오는 종속회사 카나리아바이오(구 엠에이치씨앤씨)의 바이오 무형자산 손상차손이 반영돼 전액 자본 잠식을 기록해, 상장정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셀리버리는 지난해 감사범위 제한과 계속기업전제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을 받아 거래가 정

지됐다. 이후 셀리버리 측의 이의신청서 접수로 오는 4월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상황에서 지난 11일 사업연도 말 자본전액잠식(자본잠식률 50% 이상 및 자기자본 10억 미만 포함) 공시를 해도 다른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됐다.

나머지 종목들의 경우도 새롭게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 기한까지 사유 해소를 입증하는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같은 공시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

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세종메디칼은 지난달 29일 내부결산시점관리종목지정·형식적상장폐지·상장정격성실질심사사유발생 공시 이후 첫 거래일에 22% 넘게 주가가 하락했다. 세종메디칼은 최근 3개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이 발생했다. 디딤이앤에프도 지난 13일 공시 이후 주가가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아직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들이 있어 이 같은 종목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2월 결산법인인 주주총회 개최 1주일 전인 이번주까지 감사보고서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금융투자업계 한 전문가는 “회사의 재무 상태, 앞으로의 영업 전망 등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투자자가 스스로 신중하게 판단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재무 상태가 계속해서 나빠지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 대상에서 걸러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KB자산운용

KBSTAR 커버드콜 ETF
9영업일 만에 100만주 돌파

KB자산운용은 'KBSTAR 200위클리커버드콜 ETF'가 출시된 지 9영업일 만에 개인 누적순매수 100만주를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커버드콜 상품으로는 이례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뛰어난 배당 매력과 더불어 해외 월배당 상품 대비 절세 혜택까지 갖추고 있다는 점에 개인투자자들이 앞다퉈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5일 상장한 'KBSTAR 200위클리커버드콜 ETF'는 국내 지수를 활용한 ETF 중 처음으로 만기가 1주일 이내로 짧은 콜옵션을 매도하는 '위클리 커버드콜' 전략을 적용한 상장지수펀드(ETF)다. ETF는 KB자산운용과 한국거래소가 공동 개발한 '코스피200 위클리커버드콜 ATM 지수'를 추종한다. 이에 거래소로부터 지수의 우선적 사용권을 부여받아 상장일로부터 6개월 간 지수의 독점적 지위를 가진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200 위클리 커버드콜 ATM 지수'가 산출된 2019년 이후 현재까지 월 평균 옵션 프리미엄은 월 3% 수준이다. 특히 지수 산출 후 단 한 번도 1% 미만으로 내려간 적이 없다.

/신하은 기자 godhe@

상장협 자문위 “금호석유화학 이사회 경영판단 존중”

자기주식 처분·소각 시
'경영상 목적' 범위 내 운용
투자자 가치제고 노력 주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지배구조자문위원회는 금호석유화학이 제안한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해당 자문위는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장협으로부터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회의체다.

상장협 자문위는 금호석유화학의 자기주식 소각 및 임원선임 관련 주주제안 안건 등을 심의한 결과, 회사안과 주주제안이 경합하는 자기주식 처분·소

각에 관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에 대해서 이사회에 결정권을 부여하고 자기주식 처분·소각 시 '경영상 목적' 범위 내에서 운용하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한 회사안에 찬성한다고 19일 밝혔다.

더불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전량에 대한 소각을 제안한 자기주식 소각의 건(주주제안)에 대해서는 다음을 근거로 반대했다.

우선 회사가 자기주식을 주주환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과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으므로 이사회의 경영 판단 존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호석유화학은 3년간 기보유 자기주식의

50%(보통주 262만4417주) 소각, 잔여 50% 물량은 보유해 중장기적인 주주 가치 제고 관점에서 처분 또는 소각할 예정이다.

더불어 회사가 속한 석유산업의 특성상 이익 변동성이 커 향후 순이익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배당성향을 유지하더라도 주당배당금이 감소할 수 있고, 이때 잔여 자기주식 소각을 통해 총주주환원 수준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보다 유연한 재무포트폴리오 운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상장협 자문위는 회사안과 주주제안이 경합하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안건의 경우 회사안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해 주주제안에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양 후보자 모두 독립성·전문성·윤리성·업무충실성에서 반대할 만한 특이사항은 없으나, 전체적인 이사회의 구성과 경력 면에서 최도성 후보가 더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상장협 자문위 측은 “금호석유화학 이사회가 균형 있는 전문성을 보유하도록 이사진을 구성하고, 회사가 공개한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을 지키는 등 투자자를 위한 가치제고 노력도 함께 주문하며 나머지 안건에는 찬성을 권고한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KB자산운용

한투운용

美빅테크, 청년층 최선호 투자

한국투자신탁운용은 만 39세 이하 청년층의 최선호 투자 키워드는 '미국 빅테크'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청년층의 투자 선호도는 지난달 28일부터 진행 중인 ACE 상장지수펀드(ETF) 매수인증 이벤트 데이터를 활용해 집계됐다. ACE ETF 매수인증 이벤트는 청년희망적금 만기로 목돈이 생긴 청년층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며, ACE ETF 10주 이상 매수인증 시 추첨을 통해 1104명에게 맥북 프로 등 경품을 제공한다.

이벤트 중간 집계 결과(14일 기준) 청년층이 가장 많이 매수한 상품은 ACE 미국빅테크TOP7 Plus ETF(44.53%)로 나타났다. 매수 인원 또한 ACE 미국빅테크TOP7 Plus ETF가 전체의 19.16%로 가장 많았다.

ACE 미국빅테크TOP7 Plus ETF는 미국 나스닥 거래소에 상장된 빅테크 기업의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편입하는 상품이다. 특히 10개 종목 중 매그니피센트7(M7)으로 불리는 빅테크 종목들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특징이다.

ACE 미국빅테크TOP7 Plus ETF 외에도 청년층 상당수는 미국 시장 중심의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하은 기자

서학개미, 올해 美 주식 순매수 4배 급증

(전년비)

해외주식 Click

에탁원, 순매수액 30억달러 집계 엔비디아, 테슬라 등에 쏠림현상

올해 들어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미국 주식 순매수 금액이 전년 대비 약 4배 가량 급증했다. 특히 엔비디아, 테슬라 등 특정 종목에 대한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주일 사이에는 엔비디아와 광풍 조짐이 보이는 비트코인 관련주를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나섰다.

1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4일까지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순매수 금액은 30억743만6249달러(3조9999억9999만원)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일 기간 순매수 금액인 7억6294만14달러(1조147억9999만원)의 약 4배에

달하는 규모다. 미국 증시에서 주요 종목들의 상승세가 주목되자 서학개미들의 관심도 모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우려되는 지점은 서학개미들의 해외투자가 늘어났지만 투자 종목 자체는 확대되기보다는 특정종목에 편중됐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개인 투자자 해외증권 투자 특징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부문 전체 해외증권 투자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까지 늘어났다. 그리고 서학개미들은 해외주식 중 상위 10개 종목의 비중이 2020년 말 39%에서 지난해 말 48%로 9%포인트 급증했다. 10개 종목은 서학개미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던 테슬라와 엔비디아 등을 비롯해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기술주에 집중돼 있다.

한국은행 측은 “공포지수인 VIX(변동성 지수)가 상승할 때도 개인투자자

는 오히려 해외증권투자를 확대하는 등 리스크관리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며 “개인 투자자의 해외증권 투자가 일시에 확대될 경우 외환수급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서학개미들은 지난주(3월 12일~18일)에도 엔비디아(1억8555만달러)를 순매수 상위 종목 2위에 올리면서 선호를 유지했다. 올해 들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 역시 엔비디아(7억6535만달러)로, 그 다음은 테슬라(7억3629만달러), 마이크로소프트(4억3203만달러)가 차지했다. 인공지능(AI) 열풍으로 인해 엔비디아의 주가가 폭등하기 시작하면서 서학개미들의 관심이 집중된 모습이다. 개별 종목 이외에도 엔비디아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인 '엔비디아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6718만달러(899억원) 사들였다. 이외에도 지난주에 애플을 3748만달러(501억원) 순매수하면서 순위권에 안착시켰다. 비트코인의 강세에 따라 관

련주 매수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서학개미들은 지난주에 미국의 비트코인 최대 보유 기업으로 꼽히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를 8350만달러(1118억원) 순매수했다. 더불어 비트코인 선물지수 수익률을 2배 추종하는 고위험 상품인 '2X 비트코인 스트래티지 ETF'(4211만달러)도 순매수 6위에 올랐다. 뉴욕증시에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가는 이달에만 46.92% 올랐다. 다만 15일까지는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18일에는 전장보다 15.69%나 급락하면서 장을 마쳤다.

이외에도 지난주에 서학개미들은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루 변동 폭의 3배를 추종하는 '다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볼 3X ETF'(2억637만달러)를 대거 사들였으며, 타이완 반도체 매뉴팩처링 ADR(7196만달러), SCHWAB US DIVIDEND EQUITY ETF(2708만달러) 등을 순매수했다.

/신하은 기자